

AI·반도체에 자금 몰려… 상반기 벤처투자 8.9조 역대 최대

중기부, 상반기 시장 동향 발표

전년보다 54.3% 늘며 기록 경신
ICT서비스 1.86조로 업종 1위
답테크 대형 자금유치 증가세 전인
초기기업 유입액도 56.4% 늘어
비수도권 규모 2배 넘게 증가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자가 8조86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전년 동기 5조7476억원보다 54.3%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7조6442억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8조4366억원으로 상반기 중 역대 두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9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 벤처투자 상위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1조8600억원(21%) ▲전기·기계·장비 1조5359억원(17.3%) ▲바이

오·의료 1조5041억원(17.0%) 순이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존에는 플랫폼 기반 창업과 벤처투자 실적이 컸는데 작년부터 AI가 테마로 부상하면서 AI솔루션 개발 같은 인공지능 활용 분야로 투자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벤처투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미국의 경우 AI 분야에 70~80%까지 집중됐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ICT제조(143.3%), 전기·기계·장비(90.4%), ICT서비스(62.2%)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AI 반도체,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봇틱스 분야에 대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등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벤처투자 흐름도 맥을 같이 한다. 글로벌 자산운용 정보기관 프레킨(P

reqi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벤처투자는 5150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91% ↑)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70%가 AI·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업종에 투자됐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업력 7년 이하, 7년 초과 기업에서 투자금액·피투자 기업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 투자도 1조828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AI·반도체·로봇틱스 등 답테크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성과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게 요인"이라며 "코코넛열매를 획득하기 위해 씨앗부터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정 신생 기업들이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게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상반기 벤처투자(벤처투자회

사·조합 기준)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등에 투자가 집중되며 수도권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49.9% 늘어난 3조9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4.7%나 늘어난 1조64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벤처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벤처투자의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비중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D·LGD, 차세대 OLED 기술 격돌

삼성D, 7.6형 와이드뷰 첫선
20형 스트레처블 크기 2배 확대
LGD, FMM 없는 'FLiPP' 공개
개구율 55% 높여 휘도 1.6배

양대 디스플레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학술대회에서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경쟁력을 뽐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부산 벡스코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26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IMID 2026)'에 참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행사에서 최신 광시야각 기술을 적용한 7.6형 '와이드뷰 디스플레이'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접히는 중앙부 양측 곡면의 밝기가 정면 대비 약 40% 수준으로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규 유기발광층의 소재와 구조를 재설계해 화면이 휘어진 부분에서도 휘도 저하 없이 균일한 밝기를 구현했다. 폴더블뿐 아니라 슬라이더블, 롤러블 등 차세대 폼팩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크기인 20형 '와이드 스트레



삼성디스플레이가 'IMID 2026'에서 공개한 '와이드뷰 디스플레이'와 '와이드 스트레처블' /삼성디스플레이

처블'도 처음 선보였다. 기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2개를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하는 타일링 기술을 적용해 화면 크기를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휴머노이드, 디지털 사아니지 등 곡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OLED 패터닝 기술 'FLiPP(플립·FMM-Less innovative Pixel Patterning)'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FLiPP은 OLED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FMM 없이 작·녹·청(RGB) 픽셀을 형성하는 기술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터닝 기술과 하이트 OLED(WOLED) 기술 노하우를 결합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MID 2026 LG디스플레이 전시 부스 전경. /LG디스플레이

해 개발했다.

기존 FMM 방식은 미세한 구멍이 뚫린 금속 마스크를 이용해 RGB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식이다. 크기나 해상도를 변경할 때마다 고가의 FMM을 제작해야 하고, 대형화할수록 금속 마스크 중앙부가 처지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FLiPP은 기판 전체에 RGB 화소를 순서대로 도포·고정한 뒤 자외선(UV)을 이용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했다.

FLiPP은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픽셀이 차지하는 면적인 개구율을 기존 FMM 방식보다 약 55% 높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진공, 10년 만에 4억달러 외화채 발행

3.5년 만기 소셜본드로 자금 조달
미국채 대비 40bp 가산금리 확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년 만에 외화채를 발행했다.

중진공은 미국 장기금리 상승,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 시장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3.5년 만기로 4억 달러 규모의 소셜본드(Social Bond)를 미국 국제 금리 대비 40bp(1bp=0.01%) 가산해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지원, 신산업 분야 육성, 혁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중진공이 발행에 성공한 이번 외화채는 국내 공사·공단이 발행한 3년 고정금리 외화채권 기준 역대 최저 스프레드 수준이다. 이번 조달은 국내 발행 대비 낮은 금리로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중진

공의 설명이다.

이번 발행의 배경에는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계별 글로벌 IR 전략이 있었다. 중진공은 채권 발행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논딜로드쇼(Non-Deal Roadshow)를 개최하고 다수의 주요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직접 만났다.

이어 발행 직전인 이달 12·13일 양일간 최종 딜로드쇼(Deal Roadshow)를 개최하며 투자자들의 의향을 집중 타진했다. 이러한 2차례에 걸친 IR 활동을 통해 아시아 및 유럽, 중동 등 소재 기관의 투자 자로부터 폭넓은 투자 수요를 끌어냈다.

발행 과정에서 중진공의 ESG 공신력도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중진공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ESG 평가에서 소셜 파이낸싱 부문 최고 등급인 'SQS1(Excellent-탁월)'을 획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무디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가한 한국 소셜 파이낸싱 중 최고 수준 평가이며 국내 기관 최초의 성과다.

/김승호 기자

HD현대중공업, 페루서 공동건설 첫 합정 진수

2024년 수주한 상륙지원함 1번함 설계·기술지원 말고 현지서 생산
완제품 인도 넘어 공동생산 본격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한 첫 합정을 진수했다. 국내에서 건조해 완제품을 인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결합한 합정 수출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8일(현지시간)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의 신형 상륙지원함 1번함인 '침보테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침보테함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공동 건조하는 신형 상륙지원함 2척 중 1번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4년 4월 페루 해군으로부터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상륙지원함 등 총 4척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상륙지원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해왔다. 2번함 '탈라라함'도 이달 초 육상 건조 공정을 마쳤다.

침보테함과 탈라라함은 다목적 상륙지원함으로 인력·물자 수송과 군수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함명은 각각 페루의 항구도시에서 따왔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지원을 맡고 시마조선소가 현지 생산시설에서 블록 생산·조립과 외장, 시험·시운전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합정 도입 과정에서 자국 건조와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 같은 현지 공동생산 방식을 향

후 해외 사업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도 사업을 지원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페루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했고 주페루 한국대사관과 코트라는 현지 정부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합정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및 조선산업 관련 공급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K-함정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기부, '모두의 창업' 2차 모집

선발 규모 두배 늘려 총 1만명 발굴
예비창업자 전체의 80% 이상 선발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7일까지 모집하는 2차 모두의 창업은 선발 규모를 1차 대비 두배로 늘렸다. 총 1만명(일반·기술 트랙 8000명, 로컬 트랙 2000명)의 혁신 창업자를 발굴한다. 더 많은 국민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중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의 참여 자격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창업의 첫걸음을 돕는다'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고려해 전체 선발 규모의 8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선발하고,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참여자를 70% 이상(일반·기술 트랙 70% 내외, 로컬

트랙 90% 내외) 선발할 계획이다.

일반·기술트랙은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을 활용한 새 가치를 중점 평가하며, 로컬트랙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한 가치 창출을 중시에 둔다.

보육 인프라도 확충해 하나은행, 신한 스퀘어브릿지 등 대·중견기업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로 참여하며 보육기관을 170여개로 늘렸다.

도전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도전신청서'도 개편했다. 기존 항목에 도전자의 역량과 창업 준비 과정을 기술하는 문항을 추가했고, 제도전자를 대상으로 1차 도전 때 제출했던 아이디어 대비 개선·보완된 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내용과 재도전 멘토링 참여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 선발 시 우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